

「韓國音樂史學의 研究方法」에 대한 질의

韓 明 熙

〈서울시립대학〉

송방송 교수의 주제발표 논문인 「한국음악사학의 연구방법」이라는 글은 머리말을 필두로 해서 음악사학이란 어떤 학문인가, 한국음악사를 왜 연구해야 하는가, 한국음악사를 어떻게 연구해야 할 것인가, 그리고 마지막 맺음말, 이렇게 5부분으로 엮어져 있다.

우선 머리말에서는 우리민족의 확고한 음악적 역사의식의 정립과 고취를 위해서는 한국음악사학의 학문적 발전이 무엇보다도 각진하다는 사실과 이같은 한국음악사학의 발전을 위해서는 이를 위한 방법론이 필요하며 보다 바람직한 방법론이 도출되기 위해서는 먼저 그 연구의 목적을 선명히 해둘 필요가 있다는 내용이 피력되어 있다.

두번째 항인 음악사학이란 어떤 학문인가에서는 음악학의 서구적 분류방법 특히 음악학을 역사적 음악학과 체계적 음악학으로 양분하는 이론에 입각해서 한국음악사학의 개념을 설명해가고 있으며 세번째 항인 한국음악사를 왜 연구하는가라는 글에서는 한국음악사의 연구목적에 네가지로 설정하여 필자의 의견을 개진하고 있다.

셋째 항에서 개진된 네가지의 연구목적이란 먼저 서구음악 일변도로 형성되어 있는 편협한 음악사관을 교정하는데 있으며 다음으로는 전통음악의 창조적 계승과 서구음악의 자주적 수용이라는 역사적 과제를 이룩하는데 있고 그 다음으로는 동일을 전제로한 한국음악의 정통성을 정립하는데 있는가하면 마지막으로는 여기서 그치지 않고 한국음악이 세계음악사의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방향모색에도 주어져 있다는 풀이이다.

한편 네번째 항목인 한국음악사를 어떻게 연구할 것인가의 글에서는 한국음악사의 연구방법을 두가지의 측면 즉 총체적 접근방법과 입체적 또는 구조적 연구방법으로 대별하여 제시하고 있으며 마지막 맺는말의 항목에서는 지금까지 전개한 네개 항의 내용들을 압축 정리해 놓고 있다.

지금까지 약술한 내용으로 전개된 송교수의 논술은 한국음악사학의 질적 발전을 위해서 훌륭한 조언이요 충분히 참고할만한 제안들이라고 생각되어 일단은 긍정적으로 공감하지 않을 수가 없다고 하겠다. 더구나 그간의 우리네 음악사 연구가 지나치게 음악자체만을 강조해온 나머지 그 음악예술의 총체적 정체나 혹은 삶의 총화로서의 문화나 삶의 현장으로

서의 사회적 구조와의 유기적 인과관계가 강조되지 못했던 사실을 비롯해서 특히 음악을 통해서 구현되는 우리 고유의 예술정신 내지는 민족사상사의 천착이 부족했던 점을 감안한다면 한층 지금까지의 음악사 연구방법과 연구범위에 대한 폭넓은 점검이 필요하기에 더욱 그러하다고 하겠다.

이처럼 송교수의 상기 논문은 한국음악사학의 현재적 상황을 살필 때 꼭 시의적절한 논문이라고 하겠는데 단지 사족으로서 질의자의 관점을 첨언하면 다음과 같다.

먼저 한국음악사를 왜 연구해야 하는가라는 연구의 목적향에서 송교수는 연구의 목적으로 서구일변도의 편협한 음악관의 시정을 비롯해서 전통의 창조적 계승과 외래음악의 자주적 수용, 통일을 전제로한 민족음악의 정통성 확립, 그리고 세계음악사에 기여할 수 있는 한국음악사의 역할 등 네개 항을 제시하고 있는데 이는 너무 현재적 음악상황에만 집착한 듯한 인상을 지울 수가 없다. 즉 과거, 현재, 미래라는 통시적 관점에서 연구의 목적을 설정해 보고 특히 음악사의 총체적, 입체적 연구를 주창하고 나서는 입장이라면 여타 분야의 사학과 연계시켜서 고찰해보는 배려도 있었으면 좋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앞선다. 통시적 관점의 목적 중에는 우리 전통음악의 정신사적 맥락과 고유한 미적 특성을 고구해보는 일이 포함되어야 할 것이고 총체적 연구의 입장에서는 요즘 사학계에 대두되고 있는 상고사의 문제와 연계되는 내용도 충분히 포함될적하다고 하겠다.

한편 연구의 방법론으로서 제시된 총체적 연구방법과 입체적 연구방법은 발표자의 세세한 설명에도 불구하고 질의자의 입장에서는 이들 양자의 확연한 구분을 떠올릴 수가 없는 형편이다. 한마디로 이들 두가지의 연구방법이란 곧 상이한 명명에도 불구하고 결국은 음악자체만의 연구가 아닌 포괄적이고도 종합적인 연구방법을 제시한 것으로 받아들일 수밖에 없다고 하겠다.

그런데 이같은 종합적이고도 총체적인 연구방법이란 사회학의 발달과 병행해서 근래에 풍미하기 시작하는 하나의 시대적 유행조류로서 충분한 공감과 설득력을 지니는 방법론임에 틀림없다고 하겠다. 따라서 이같은 과학적이고도 설득력있는 방법론의 원용 자체를 원천적으로 배제한 의사는 추호도 없는 터이다. 다만 여기서 짚고 넘어갈 문제는 과연 이같은 방법론이 한국음악사학의 현재적 위상과 상황을 통찰해 볼때 얼마나 유효적절하게 기능할 것이며 그같은 방법론이 차질없이 적용될 수 있는 충분한 학문적 여건이 과연 갖추어져 있느냐 하는 문제 등은 일단 점검되었어야 마땅했다고 하지않을 수 없다.

주지하다시피 서구학계에서의 사회학적 방법론의 대두란 그같은 방법론이 창출될 수밖에 없는 충분한 학문적 축적과 수다한 사관의 경험을 토대로해서 가능했던 것이다. 그런데 우

리의 실정은 방계학문의 균형된 발전면에서도 그러하거니와 더 크게는 한국음악사학이 경험했거나 시도해본 이렇다할 사관마저 없었던게 지간의 정황이었던 것이다. 바로 이같은 학문적 불모지에 자생적 방법론이 아닌 전혀 이질적 외래사조에 입각한 방법론의 도입이 과연 뜻한바대로의 성과를 견올지는 일단 짚고 넘어가야할 문제의 하나였다고 하겠다.

물론 설득력있는 방법론의 실험적 원용도 나쁠 것은 없겠지만 이같은 학설의 단도직입적인 대입에 앞서 선행돼야할 과제라면 우리의 음악사학의 현실을 보다 정확하고도 냉철히 점검해 보는 일이 아닐가 한다.

따라서 송교수의 글에서도 총체적이고 입체적인 방법론의 제시에 앞서 그같은 방법론을 원용할 수 밖에 없고 또 원용해야 마땅할 한국음악사학의 현재적 필연성을 소상히 분석해 보는 작업이 앞섰더라면 하는 아쉬움을 지을 수가 없다. 특히 그동안 우리네 사학계에서 부침했던 신채호(申采浩)를 중심한 민족주의사관이나 백남운(白南雲)을 중심한 사회경제사관 그리고 진단학회(震檀學會)를 주축으로한 실증사학 등에 대한 연계검토를 거친후에 전기와 같은 방법론의 제시가 있었더라면 하는 아쉬움이다.

결론적으로 말해서 송교수가 소개한 방법론 자체를 배격하거나 부적당하다고 단정하는 것이 아니라 그같은 방법론에 앞서 우리네 음악사학계의 제반 학문적 여건을 충분히 천착한 나머지 그같은 방법론의 제시가 타당한 일인지를 증명해보였더라면 좋았을 것이라는 점과 이같은 점검작업에는 우리네 사학계에 대두되었던 몇몇 사관의 음악사적 원용이 시대착오적이라는 점도 포함되었으면 하는 아쉬움이고 더욱이 음악사학의 방법론 제시의 자리이고 보면 나름대로의 역사관이 보다 선명히 제시되었더라면 하는 아쉬움이 그것이다. 한국음악사학의 적합한 방법론은 결국 한국음악사를 어떠한 역사인식으로 바라보느냐 하는 확고한 역사관에서 도출될 수 밖에 없다고 하겠는데 전기 논문에서는 필자 나름의 주관적인 역사인식의 제시없이 새로운 방법론의 제시로 건너뛰는 논리의 비약을 드러내고 있지 않나 하는 소견이다.

「韓國音樂史學의 研究方法」에 대한 질의

김 온 경
〈부산여대〉

1. 우리의 전통 사회는 고대와 현대를 포괄하여 지배계층과 피지배계층의 2원적 형식의 구성으로 사회가 형성되어 있다고 하겠다.

그러므로 두 계층의 문화도 각기 다른 특성으로 생성 발달되어 전승되어 진다고 보아질 때 음악문화사적 측면에서 상층계급과 기층계급 내지는 하층계급의 음악에 대한 기준 측정을 어떻게 설정 해야만 민족음악사 연구에 바람직 할 것인가?

2. 한국음악이라고 하는 넓은 의미에서 전통적 민족음악 즉 국악이라는 범위로 좁혔을 때 오늘날 현대국악의 상황을 민족음악사적 측면에서 어떻게 평가할 수 있으며 음악지성들의 한국음악미의 본질에 대한 개념 설정이 과거에 비해 어떻게 변화되어 가며 국악 창작곡의 양상에 대한 문제점은 무엇입니까?